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준공으로 유통 선진화 견인한다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준공식 참석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27일(금)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열린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번 준공식에는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박우량 신안군수, 천일염 생산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천일염 종합유통센터는 천일염의 효율적인 유통을 촉진하고, 국제 식품 규격에 맞는 고품질의 천일염을 생산·가공·수출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신안군이 총 1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국내 최초로 건립하였다.

송 차관은 축사에서 “천일염 산업은 김치, 된장 등으로 대표되는 우리 음식문화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산업이다.”라며, “천일염종합유통센터가 천일염 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유통 선진화를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송 차관은 준공식 이후 신안군에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주요 현황 보고를 받고, 천일염 안전성 조사 등을 통해 우리 소금산업의 경쟁력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기원 (044-200-5440)
		담당자	사무관	김희현 (044-200-5617)